

# 광주시, 문화예술 지원사업 대폭 개선

### 통합공모 시기 앞당기기 저작권 귀속 명확화 예술활동 안심보험 가입 지원도

광주시가 지역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대폭 개선한다. 광주시는 “광주 문화예술 5대 함께 문화비전 20대 정책” 후속조치로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대폭 개선할 계획이라고 14일 밝혔다.

‘5대 함께 문화비전 20대 정책’은 지난 3월22일부터 26일까지 이용섭 광주시장이 직접 문화예술 현장을 찾아 현장의 목소리를 들은 ‘문화예술 특별주간’의 의견을 반영해 마련한 정책이다. 광주시는 획기적 개선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5월부터 시와 문화재단, 민간전문가로 ‘문화예술 지원사업 개선 실무 TF’를 구성해 총 7회에 걸쳐 문화예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 최종 성과물을 도출했다. 대표적 제도 개선 정책은 ▲문화예술 보조사업 공모시기 앞당기기 ▲공연예술 사례비 가이드라인

마련 ▲지원사업 장·제작 결과물 저작권 귀속 대상 명확화 ▲문화예술 창작자 권리보호를 위한 사례비 편성 확대(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에 한함) ▲문화재단 소액 지원사업 정산 간소화 등이다. 시는 통합공모사업 공모시기가 너무 늦어 행사를 위한 대관은 물론 스태프 확보 등에도 어려움이 많다는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연말 본예산 확정 시 사업 공고를 하도록 앞당기고, 보조사업 참여자에 대한 공연예술 참여 사례비 편성기준도 마련해 정당한 대가 지급과 공정한 계약환경을 조성하도록

했다. 또 문화재단 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에 한해서는 대표자 사례비 편성비율을 상향(10→20%)하고 예술인(본인) 사례비를 허용하는 한편, 소액 지원사업은 정산증빙을 생략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해 창작활동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정산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또 장·제작 활동 지원 강화를 위해 ▲(신규) 2년 단위 문화예술 장·제작 지원사업 운영 ▲광주특화 문화예술 제작 ▲생애 주기별 창작활동 지원 확대(지역문화예술특성화지원사업 확대) ▲(신규)장애예술인 장·제작 지원강화(광주형 장애예술인 지원) ▲문화예술인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한 문화 메세나 확대 ▲(신규)문화예술 통합홍보 플랫폼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문화예술인 지위보장과 권리 증진에도 집중한다. 시는 ‘예술인 보듬 소통센터’ 운영을 강화하고, (신규)문화예술인 특화 ‘예술활동 안심보험’ 가입 등을 지원할 방침이다. 특히 예술인 보듬 소통센터는 예술인 복지를 현장중심 지원 체계로 전환해 예술인 원스톱 지원 및 지위보장 서비스는 물론 창업, 창작, 권익보호 등 예술인 역량강화프로그램 운영, 표준계약서 보급 등 행정, 법률, 복지, 심리 등 분야별 전문가 연계 컨설팅 등을 지원한다. 김요성 광주시 문화도시정책관은 “이번 문화예술 지원사업 개선안은 문화예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해 마련한 협치행정의 모범사례가 됐다”며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지속적으로 문화예술 생태계 지원을 강화해 광주만의 고유하고 독특한 매력을 마음껏 발산토록 하는 등 시민과 예술인이 함께 문화로 커가는 광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영세기업·소상공인 전남도, 재산세 감면

전남도가 코로나19 확산이 지속됨에 따라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재산세 감면 등 지원을 적극 시행하기로 했다. 전남도는 지난해 ‘코로나19 피해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통합기준안’을 마련해 소상공인 등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인화한 착한 임대인의 재산세를 감면한 데 이어 올해도 착한 임대인 523명에게 재산세 1억2000만원을 경감했다. 또 영입이 금지돼 지원이 필요한 유흥주점에 대해서는 재산세 중과세를 배제해 도내 612개 업소에 13억원의 감면했다. 무안, 함평 등 일부 시·군에서는 조례 개정을 통해 개인 또는 사업자 6만2000명의 주민세 12억원을 감면했다.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동시에 신고하도록 시·군 공무원과 국세청 소속 공무원이 함께 근무하는 통합신고센터를 운영해 소규모 자영업자 및 집합금지·영업제한 사업자 11만 명에 대해 납세편의를 제공하고,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해 현금 유동성 위기를 겪는 업체를 지원했다. 전남도는 올 하반기에도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집합금지·영업제한 조치로 매출액 급감 등 직·간접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소상공인에게 지방세 납부 부담을 줄여줄 방침이다. 9월 토지분 재산세 부과분 중 집합금지 대상인 유흥주점 612개 업소에 대해 중과세를 배제해 3억2000만원 상당을 감면할 방침이다. 또 세무조사 대상 578개 법인의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비대면 서면 세무조사로 대체하고 관공공박업·여행업 등 영세기업의 세무조사를 유예하기로 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이용섭 광주시장이 14일 오전 광산구 평동산단 대영전자(주)를 방문해 백색사 대표 및 임직원 등과 간담회를 가진 뒤 공장 내부를 둘러보고 있다.

## 이용섭 시장, 민생경제 현장서 답 찾는다

### 국내 복귀기업 대영전자 등 방문 기업 애로사항 등 청취

이용섭 광주시장이 코로나19로 침체한 민생경제 극복의 답을 찾고, 애로사항을 듣기 위해 현장 방문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이 시장은 14일 국내 복귀기업인 대영전자(주)를 방문해 임직원과 간담회를 갖고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다. 이번 방문은 ‘코로나19 극복 민생경제 특별주간’을 맞아 코로나19 팬데믹 등 어려운 경영 여건 속에서도 국내 복귀를 추진해 성공적으로 안착한 대영전자(주)를 격려하기 위해 추진됐다. 이날 간담회에서 대영전자는 ▲사업 확장을 위한 미래형 자동차사업 R&D 분야 사업 참여 ▲중소기업 청년취업과 고용 유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산업단지 교통환경 개선 등을 건의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이 시장은 이날 또 ‘광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찾아 여성일자리를 현장간담회를 개최하고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했다. 구인기업 대표와 구직여성들은 ▲하남산단(공단) 통근버스 확대 운영 ▲새일여성 인턴사업 강화 ▲경력단절 여성과 기업을 연결하는 지원책 마련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내 보육시설 운영 등을 건의했다. 광주시는 하남산단 통근버스 노선 조정·확대, 새일센터 내 놀이방 등 보육시설 설치 여부를 검토할 계획이다. 이 시장은 앞서 지난 10일에는 사회적경제 기업인 (주)멘퍼스를 방문해 직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종사자들을 격려했다. 광주지역 대표적 사회적기업인 ㈜멘퍼스는 사무용 가구 및 피트니스 용품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청년일자리를 제공은 물론 경력단절 여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해 나눔의 사회적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 김영록 지사, “낙후 만회위해 국고 8조 시대 총력”

### 예산 확보·민생법안 처리 만전

김영록 전남지사가 14일 “올해 정기국회에서 국고예산 확보와 민생법안 처리에 총력을 기울여 국고 8조 시대를 활짝 열자”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오전 도청 서재필실에서 열린 실국장 정책회의에서 “올해 정부예산안에 7조5131억원을 반영, 많이 확보했지만 낙후를 만회하기 위해선 갈 길이 멀다고 생각하고 열심히 뛰어주길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지사는 “여수·남해 해저터널, 신안 추포-비금 연도교 등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사업과 예타 진행 중인 사업에 대해서도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 추가로 반영되도록 지역 국회의원 등과 혼연일체가 돼 뛰어주길 바란다”며 “특히 김지생산전문단지의 경우 도가 제안해 예산을 확보했음에도 타 시도에서 유치를 바라고 있는 만큼 지역에 유치하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지방소멸위기지역특별법’도 제정되도록 노력을 기울여달라”고 당부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정부의 ‘K-조선’ 비전 선포에 따른 친환경선박 분야 메카 육성도 강조했다. 김 지사는 “최근 대통령께서 고부가·친환경 선박 중심의 세계 선박시장 상황 회복을 계기로 세계 1등 조선강국 실현 비전을 선포했다”며 “이에 편승, 그동안 전기추진 차도선 및 이동식 전원공급 시스템 개발, 중소형 선박 수리 지원센터 구축, 해경서부정비창 신설 등 조선산업에 선도적 노력을 기울여온 것을 바탕으로 전남 서남권이 친환경선박산업의 중심지로 우뚝 서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유엔기후변화협약당사국총회(COP28)와관련해선 “대통령께서 P4G 서울정상회의 때 유치를 천명한 후 최근 몽골과 온라인 화상 정상회의에서 지지를 부탁하는 등 관심을 갖고 있고, 외교부에서도 태국과 라오스, 파키스탄 등에 지지요청을 하는 등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며 “개회지를 결정하는 오는 11월 영국 글래스고 COP26 회의에 참석해 홍보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라”고 지시했다. /윤현석 기자 chadol@kwangju.co.kr

## 광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나선다

### 정책 수요 파악 시민 설문조사

광주시가 무인 공유자전거 ‘타랑개’ 운영 1년을 맞아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정책을 강화한다. 지난해 7월부터 운영중인 ‘타랑개’는 상무지구 내 52개 정거장에서 자전거 200대를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 1000원이라는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 회원수만 1만9000명에 이른다. 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 타랑개 가입 회원을 포함한 1만5000여명의 시민을 대상으로 이

달 말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타랑개의 향후 운영 방향, 자전거 정책에 대한 시민 요구사항에 관한 질문 등 29개 문항을 모바일, 전화 면접 등으로 설문조사해 시민이 원하는 자전거 정책을 파악할 계획이다. 시는 설문 응답 결과를 바탕으로 타랑개의 운영 희망지역, 불편사항 등을 파악·분석해 보다 많은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QR코드를 스캔하시면 구례군 홈페이지에 접속합니다

# 구례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 리빙랩 프로젝트 참여자모집

리빙랩이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용자가 직접 나서서 현장을 중심으로 해결해 나가는 사용자 참여형 프로그램으로 일명 ‘살아있는 실험실’ 또는 ‘우리마을 실험실’이라고 불린다.

<b>모집기간</b>	2021. 9. 15 (수) ~ 2021. 9. 30 (목)
<b>모집대상</b>	구례군민으로 구성된 50이상 주민모임 또는 단체 4팀정도
<b>사업내용</b>	① 참여주민 및 단체 구성 및 선발 ② 문제발굴 워크숍(1차) ③ 문제해결(솔루션) 및 전문가 자문 워크숍(2차) ④ 문제해결 실험 프로젝트 시행
<b>활동기간</b>	2021. 10월 ~ 12월 (3개월)
<b>활동지역</b>	구례읍 도시재생 뉴딜사업 지구(일반지구)
<b>지원혜택</b>	워크숍 및 실험적 프로젝트(사업비) 지원
<b>지원방법</b>	구례군청 홈페이지(https://www.gurye.go.kr) → 공지사항 신청서식다운 → 이메일 접수 withnc2017@naver.com *자세한 사항은 공지사항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세요.

**문 의** 구례군도시재생지원센터 061-781-2333 (주)위드앤씨 010-8445-7257